



**남원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지난 11월 1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본격 재개해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그동안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이 중단되어, 입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타지역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입원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을 재개하였다.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전문기관으로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돌봄과 전문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 이를 통해 생애 말기 환자들이 죽음의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운영으로 남원권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미라 군산대 산학협력단 팀장, 유공자 표창 수상**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미라 팀장이 지난 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산학협력 EXPO'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분야 '2023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본 표창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산학협력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 시 교육부장관 명의의 표창이 수여된다. 김미라 팀장은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우수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여러 기술이전 설립회에 참여한 후 기술 마케팅을 통하여 우수한 기술을 다수 매칭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력단의 수익 증대 및 대학의 지표점수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군산=김관곤 기자



**우석대 '제14회 콩나물 콘서트'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10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전국 장애학생 예술제인 제14회 콩나물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과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급) 장애학생과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학생들은 악기 연주와 노래, 연극 등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기와 재능을 맘껏 펼쳐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페이스 페인팅과 나만의 키링 만들기, 포토존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장애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장은성 기자



**노인회 장수군지회, 제40회 노인대학 수료식 개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지회장 오재영) 부설 노인대학(학장 홍봉길)은 10일 노인 대학생 107명과 최훈식 군수, 장정복 군의회 의장, 단체 기관장 및 지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노인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은 노인건강을 시작으로 홍봉길 노인대학장의 회고 사 및 오재영 지회장의 격려사, 최훈식 군수와 장정복 군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3명의 노인대학생에게 모범상 공로상 개근상이 수여됐다. 오재영 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명해 주신 노인 대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수=고광호 기자

**전북 어린이연극제 폐막**

고창부안초 VRibary 최우수작품상 · 전주우림초 강금선 교사 최우수지도상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교육연구회·전북교사학단이 주관한 '제19회 전라북도어린이연극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7~10일까지 4일간 전주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열린 전북어린이연극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영상으로 대체되다가 올해 다시 공연장 무대 위에서 펼쳐졌다. 이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예심을 거쳐 각 지역에서 선정된 9개교가 3일간 본선 공연을 펼쳤고,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시상 및 우수작품 재공연으로 진행됐다. 고창부안초등학교 VRibary 이 최우수작품상, 산서초등학교 '우리들의 가락지', 삼례중앙초등학교 '얼씨구 짚씨구 박씨구' 작품이 창의표현상, 서문초교 '아이들의 천국', 술산초등학교 '푸른 사자 와니니', 전주우림초등학교 '빨' 작품이 극화 협동상, 북면초등학교 '해리엇', 성산초등학교 '추억을 그려 드립니다', 만경초등학교 '공감의 이해' 작품이 순수 예술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전주우림초등학교 강금선 교사가 최우수지도상을, 고창부안초등학교 이승화 교사가 최우수창작상을 받았다. 참가작은 주로 어린이 동화나 고전소설을 각색(술산초, 북면초, 삼례중앙초)하거나,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



나 사건을 배경(성산초, 산서초)으로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했다. 또한 환경·기후와 같은 사회적 현안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우림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고민과 그 시기의 삶의 가치 성장기를 다룬 순수 창작극(고창부안초, 서문초, 만경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3년간의 공백을 극복하고 다시 공연을 열기까지 수고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신생아 생애 첫 축하기념품 이달부터 지급**

남원시가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하는 '생애 첫 축하 기념품'을 1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3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생애 첫 축하 기념품' 지원은 신생아 가정에 선호도조사를 거쳐 희소성과 실용성을 반영한 기념품을 선정했으며, 올해 탄생한 신생아는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엔 선정된 축하 기념품은 3가지 종류로 △아가기 태어난 해의 동물문양과 아기에게 전하는 축하 문구를 담은 '아기 띠 도장' △웃음의 고장인 남원시의 특수성을 살린 '웃칠 이유사기'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는데 필요한 아기 체온계 등으로 이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생애 첫 축하 기념품 지원 외에도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는 사업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남원시사랑상품권(10만원)과 남원새마을금고 생애 첫 통장개설(10만원)은 물론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은 육아용품구입 쿠폰(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앞으로도 새 생명의 탄생을 지역사회와 함께 축하하고, 행복하게 기를 수 있도록 남원시 공공 산후조리원을 조기에 건립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3 부안군 평생학습 한마당 성료**

부안군이 지난 10일 부안군청 광장 일원에서 '2023 제5회 부안군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했다. 함께하는 평생학습! 배움이 무궁무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군수와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평생학습 기관·단체 학습자들이 올 한해 배우고 익힌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군민들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표회, 홍보 체험부스, 작품 전시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특히, 4차산업 체험부스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재미를 더하였다. 또한, 배움의 열정으로 평생교육의 가치를 높인 성인문해 교육 학습자, 장애인 학습자들의 문해 작품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은 201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학습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경초장학재단, 전주대에 2000만원 기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재)경초장학재단으로부터 2천만 원을 기탁받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대학 본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은 각 단과 대학별로 학업성과 품행이 바른 10명의 학생을 선발 장학증서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경초장학재단 김택수 이사장 김인수 이사, 박관수 이사, 이직현 사무국장,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이상행 학생취업처장, 권기우 기획처장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보건관리학과 김보윤(2년) 학생은 "경초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광"이라며 "수퍼스타로 성장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택수 이사장은 "경초장학재단이 행한 기부를 통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전주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 주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주대학교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초장학재단(이사장 김택수)은 2010년 설립,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도통동서 '추운 겨울 따뜻한 동행 복지 배달' 사업 추진**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윤자)에서는 겨울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운 겨울 따뜻한 동행 복지 배달'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한파에 취약한 고령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난방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와 도통시장 나눔장터 수익금(5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개조 8명으로 동철기 난방 취약계층 지원팀을 운영해 겨울철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난방시설 점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법도 교육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보일러 수리(1가구), 전기장판(10가구), 난방유(3가구), 이불(1가구), 커튼(1가구) 등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재능기부와 연계를 통한 집수리, 보일러 수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 어르신은 "요즘 날씨에 보일러와 전기장판을 같이 사용하면 난방비 절감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의류업체 마운틴, 정읍 북면에 의류 100점 기탁**

전주시 전북동에 있는 전문의류 기업 마운틴(대표 국방부)은 9일 정읍시 북면에 고기능성 의류 신발 등 1000여점(30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기증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을 비롯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고루 배분될 예정이다. 국방부 대표는 "다가오는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병호 면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는 국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따뜻한 마음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후원을 해준 마운틴은 지난해에도 의류 500여점과 이셔츠, 조끼, 바지 등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가족센터, 협약 체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9일 정읍시가족센터(센터장 천병선)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가족 대상 체험형 성교육 홍보와 양 기관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한 가족 내 성문화 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성교육, 가족복지사업 관련 인적·물적 자원 교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백지원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 가족들에게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동·청소년 성교육뿐 아니라 가족 대상 성교육을 활성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적극 지원·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비전대 드론 축구단, 대학드론축구대회 참가**

제1회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가 지난 9~10일 이틀간 대전 컨벤션센터 특설경기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 17개 대학, 26개 팀이 참가했다.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드론축구 동아리를 구성 무인드론 기초 및 응용기술 등을 배우기 위해 지난달 28~29일 특화교육프로그램을 제주관광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에 전주비전대 드론축구단은 신성대, 강원대와 H조에 편성, 예선 1승 1패로 16강에 진출했지만 8강에서 강원도립대에 아쉽게 패했다. 최승훈 단장은 "약 3개월 간 드론축구단 감독 및 선수 모두가 대회 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연습하며 노력했다"며 "결과를 떠나 이번 대회가 학생들이 드론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관련 분야에 진출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